

대구 주보

사순 제4주일 2017. 3. 26.(가해) 제2044호

2017년 교구장 사목교서 | 그리스도의 젊은 사도, 청소년과 청년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http://www.daeguujubo.or.kr>

T. (053)250-3048~9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요한 9,6-7) 오늘은 영적으로 눈먼 우리도 이 소경처럼 주님을 만나 눈이 열리는 날입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 주님과 함께하는 참 기쁨의 삶이 되게 하소서.

_ 정미연 소화데레사 作

제1독서 1사무 16,17-20,6-7,10-13나 **제2독서** 에페 5,8-14 **복 음** 요한 9,1-41.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복음환호송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영성체송 주님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셨네.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네. 나는 하느님을 믿었네.

마음의 눈

서보호 라이문도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의 내면을 보기도 합니다.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신비를 느끼며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때 느낀 자연의 신비는 마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는 참된 진리를 보게 합니다. 마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보이는 것만 보게 되어 그 내면에 있는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눈으로 읽었던 바리사이들은 율법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하느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태생 소경을 고쳐 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태생 소경은 단순히 눈이 열려 세상만 바라보지 않았습니 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 저는 믿습니다.”라며 경배합니다. 태생 소경은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았고 믿었습니다. 믿음은 마음의 눈으로 볼 때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소경은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의 눈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 다. 육신의 눈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며 경험했던 바리사이들보다 마음의 눈을 뜬 소경은 더 참된 진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배워서 많이 안다고 말하는 이들, 자만에 가득차 사람들을 무시하던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본다.” 하고 있으

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 있다.”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잘 볼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이들은 자만하지 않을 뿐더러 잘 본다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이들은 주님의 마음처럼 겸손과 따뜻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마음의 눈으로 보는 생활입니다. 참된 가치를 알고 모든 것 안에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눈으로 보면 십자가도 단순한 조각상에 불과하게 되고, 기도나 미사 참례도 의무나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립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보아야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고, 기도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진정한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 지에 가장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눈으로만 사람들을 보면 자기중심적인 판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상태가 어떨지 생각하다보면 조금씩 타인중심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시각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도 말씀의 의미만 찾기보다는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진정한 묵상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부활도 참다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는 것이 참다운 부활을 맞이하게 합니다. **✠**

‘평화의 집(Shanti Nivas)’

안은주 베르나르도 수녀 | 톳징포교베네딕도수녀회

2008년 8월 밤 10시, 케랄라주 수도 트리번드럼(Trivandrum)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열렬한 환영(확 쏘는 엄청난 열기!)이 여전히 느껴집니다. 창 너머로 불어오는 열대 지방의 뜨거운 바람을 한껏 느끼며 깜깜한 밤길을 2시간 정도 정신없이 달리고 나니 어느새 공동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푸날루(Punalur)에 도착했을 때는 칠혹 같은 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고요한 한밤중, 무수한 별들이 수도원 마당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다. ‘평화의 집(Shanti Nivas)’ 베네딕도수도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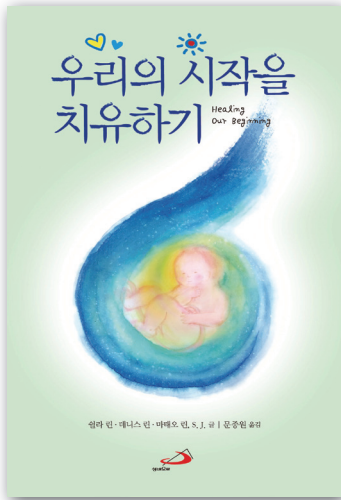
저희 수도 공동체(Shanti Nivas)는 푸날루 외곽 작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길에서는 고무나무와 야자수에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고, 완만한 언덕길 주변은 온통 고무나무랍니다. 수녀원 경내에도 많은 고무나무들이 줄을 지어 있고, 화려한 색깔의 열대 꽃들과 나무들이 정원과 농장에 가득하여 참으로 이국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작은 농장엔 소, 염소, 닭, 고양이와 개들도 함께 있어 참으로 평화롭고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시골에 온 듯했습니다.

수도원 가까이의 마을 사람들은 소박하고 가난하며 대부분 일일 노동자들로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원은 초창기부터 푸날루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에 동참하여 많은 이웃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주며, ‘평화의 집’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인도인들로 구성된 평화의 집(Shanti Nivas) 공동체는 젊고 활기칩니다. 대부분 어린 나이(16~17세)에 입회하는 인도 수녀들은 수도생활에 대한 이해와 지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일반학교 교육과 인성교육도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공식 언어로 영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매주 토요일과 축제일이나 국경일에는 케랄라주 언어(Malayalam)로 미사를 봉헌하며, 그들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는 베네딕도회의 수도 영성에 따라 공동기도, 묵상, 영적 독서, 청소, 공동식사, 성가연습, 주간 봉사 등을 함께하며 공동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객실과 주방과 농장, 본당의 주일학교 교사와 초등학교로 소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베네딕도회의 삶을 실천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18명의 인도 수녀들 가운데 서원을 한 5명의 수녀들은 외국에 있는 우리 큰 수도 공동체에 보내어 전통적인 수도 삶의 분위기를 체득하고 배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필문**

우리의 시작을 치유하기

성바오로출판사



저자 쉐라 린, 데니스 린,
마테오 린, S.J 공저, 문종원 /
136쪽 / 정가 9,000원

삶의 여정은 고통으로 가득차 있는 듯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반복되는 우울증, 수치심, 죄책감, 상실감, 슬픔, 분노, 두려움, 외로움, 걱정,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파멸까지 몰고 가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이러한 감정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원하는 것일까요?

“기억은 뇌 안에 있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영역 안에 있으며, 뇌는 그 영역에 맞춰진 TV 수신기와 같다.”고 루퍼트 셀드레이크가 말한 것처럼, ‘기억은 완전히 비육체적이며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수태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수태에 관한 우리의 경험은 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게 되죠. 만일 부모가 아기를 원하지 않을 때 수태된다면 아기는 자신이 잘못된 것처럼 느끼게 되며, 거꾸로 아기를 원하는 부모에게 수태된다면 아기는 자기 존중감을 기반으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태와 태내에 있을 때 무기력하게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은 평생에 걸쳐 우리를 수치와 두려움과 화로 번민하게 하며 자유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개인적인 잘못이든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비롯된 것이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태아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른이 되어서도 이유를 모른 채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그리고 임신 중인 이들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또한 언제부터 생겼는지 알 수 없는 영혼의 깊은 상처로 고통 속에 질식되어 있는 이들을 위한 피정 치유서로도 권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화인처럼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들을 하느님과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하여 자신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 원인들 그리고 치유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스스로 하는 치유 과정’과 ‘혼자서 하는 치유 행동들’ 그리고 ‘태아를 위한 치유 과정’이 발달단계의 각 장마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태아를 위한 치유 과정’은 태내에 있는 아기와 더 큰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또한 자신의 아기를 상실한 것과 태내에서 잃어버린 형제를 위해서도 하느님 아버지, 마리아, 예수님께 의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깊은, 얼마나 오래되었든 상관없이, 우리와 우리가 돌보는 사람들은 상처 입은 기억 속으로 사랑을 불어넣을 때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필독**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 이분이 네 어머니입니다.”

(요한 19,26-27)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성당을 가더라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성모 상입니다. 또한 신자 가정에는 예외 없이 성모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개신교 신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라며 비난하거나 심지어 천주교를 마리아교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모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가깝게 예수님의 뒤를 따르신 분이시기에 공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흠숭(欽崇)’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천주교의 성모 마리아 공경은 신앙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러난 자연스러운 신앙심의 표출인 것입니다.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여러 경로로 형성되어 신자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가톨릭 교회는 네 가지 믿을 교리를 확정해서 반포해왔습니다.

첫째,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낳으신 분이시기에 ‘**하느님의 어머니**’(천주의 성모 : 431년 에페소 공의회 선포)가 되십니다. 둘째, 성모님께서는 동정의 몸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 예수님을 잉태하셨고 ‘**평생 동정녀**’(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선포)로 사셨습니다. 셋째, 성모님께서는 이미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실 분이셨기에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무염시태 : 1854년 비오 9세 교황 선포)이십니다. 넷째, 성모님께서는 지상 생활을 끝내시고 몸과 영혼을 그대로 가지시고 ‘**하늘로 들어 올림**’(성모

승천 : 1950년 비오 12세 교황 선포)을 받으셨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을 다하신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동정잉태를 받아 들여 구세주를 낳으시고, 입히고 기르셨으며 십자가 곁에서 당신 아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바쳐지실 때 당신도 모든 것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모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업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와 교회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들며 그분께 자녀다운 효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과 필요를 어머니다운 자비심과 연민으로 깊이 공감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 줄 것을 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비나이다”라고 ‘간구(懇求)’하지만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전구(轉求)’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모님을 이런저런 칭을 드리는 대상으로서의 신심에만 빠진다면, 신비스런 발현이나 기적과 같은 현상에만 현혹되어 여신(女神)처럼 숭배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것은 그분께 꽃다발이나 초를 봉헌하는 일보다도 그분처럼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맛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분을 따르는 일입니다. 

교구장 동정



- 3. 20(월)~3. 24(금) _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 3. 25(토) _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미사 (11시, 주교좌 계산성당)

보좌주교 동정



- 3. 20(월)~3. 24(금) _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 3. 25(토) _ 안중근 의사 순국 107주기 추모미사 (11시, 주교좌 계산성당)

교구 및 기관 행사

- 3. 29(수) _ 시니어 평생대학 봉사자 성경교육(13시,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평신도위원회 회의(19시 30분, 교구청 별관 사목국)
- 3. 30(목) _ 35기 성모마리아 어머니학교 5주차(9시 30분, 성김대건성당)

유사 종교(사이비) 피해 사례 제보 받습니다!

유사 종교(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는지 유사 종교 피해 사례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보전화: 교구 소람상담소, 053)250-3100



아름다운 유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결정은 어떤이의 마지막 희망이며,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는 전부입니다.

문의: 천주교대구대교구 생명사랑나눔 운동본부, 053)253-9991

답에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매사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속을 실천하겠습니다.”

계속 마음을 단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 안내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3월 27일(월) 10:30 범어성당	구미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3월 29일(수) 19:00 신평성당
구미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3월 27일(월) 11:00 도량성당	성모기사회 토요 신심미사	4월 1일(토) 10:00 프란치스코
대구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3월 27일(월) 11:00 계산성당	푸른군대 첫 토요 신심미사	4월 1일(토) 11:00 성모당
오순절평화의마을 후원회미사	3월 27일(월) 11:00 수성성당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을 위한 월례미사	4월 2일(일) 16:00 성토마스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4.2(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첫 토요일 성모 신심 소피정

일시: 4.1(토) 10:00

내용: 영성특강, 찬양미사, 안수,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 신부

버스운행: 영남대 4번 출구(9:30 출발)

문의: 진량성당, 856-7676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부활 전례 피정

기간: 4.13(목) 16:00~16(일) 13:3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피정의집

참가비: 21만원 / 농협 301-0087-

0776-61, 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 (010)9877-4739

겟세마니의 기도 피정

일시: 4.2(일) 10:00~16:00

장소: 소보동지피정의집

대상: 누구나 / 회비: 1인 2만원

신청: (010)9778-2208

향심기도 소개 피정

기간: 4.22(토)~23(일) / 29(토)~30(일)

장소: 평화계곡피정의집(소울스테이)

대상: 향심기도를 배우고 싶은 분

향심기도 일일 피정: 4.30(일)

문의: (010)5332-7587

젊은이 피정

기간: 4.28(금) 19:00~30(일)

장소: 청주 예수고난관상수녀회

주제: 삶의 그림자 풀어주기

대상: 미혼 여성 / 회비: 2만원

문의: (043)295-5940

교육 | 모집 | 기타

빛떼제 기도(식사, 폐제, 친교)

일시: 4.8(토) 18:00~21:00

장소: 예수성심수녀회 성심교육관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신청: (010)9286-2247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7_1차)

일시: 4.8(토) 13:3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류마티스관절염의 최신 치료

강사: 류마티스내과 최정윤 교수

제13차 호스피스자원봉사자 교육

기간: 5.24(수)~25(목) 9:00~17: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데레사홀

마감: 5.17(수) / 2만원(교재, 중식)

대구은행 508-12-426680-6 호스피스

문의: 650-4557 / 650-2557

기적의 메달과 함께하는 기도 모임

일시: 4.29(토) 15:00~19:00

장소: 수원 성빈첸시오아바오로

사랑의딸회 군포 본원

대상: 관심있는 19~40세 미만 여성

문의: (010)5938-0922

샬레시오 초동부 여름 신앙학교

기간: 7.21(금)~8.13(일)

장소: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원

주제: 성가정속으로 GO GO GO

문의: (062)373-0942

<http://cafe.daum.net/youth1318>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재건축 후원자 모집

교회를 위한 저희의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재건축을 위해

여러분의 도움을 간절히 청합니다.

후원: 대구은행 504-10-137072-9

문의: (010)3375-4408

신랑각시 결혼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의사, 약사, 교사 환영
이 원 교(요안나) | 21년 경력
(053)471-0707 · 476-1400
<http://www.sk1004.co.kr>
남구 봉곡동 영대병원 사거리

밝은눈안과
원장/전문 의 임홍식(라파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33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 · 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안수 (프란치스코)
중앙대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WIDEX **와이덱스 보청기** **달서점**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131만원 보조금 전문상담
류(다니엘)/청봉사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GAFAM 가람소방방재(주)
• 소방시설점검(적응기능점검 ·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 전문공사
• 소방안전관리 대행
• 소방관련 기술교육
대표이사(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페파노)
대표전화 053)600-8485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연씨노비르타워 B108호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당뇨소모성재료
휠체어 · 주사기 · 보호대 · 뜰 · 부항기
주열기 ·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안마기 · 실버카 · 산소치료기 · 찜질기
변상별(도미니코), 김민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노루페인트
페인트도배납품, 건축내외부도장공사, 예복시, 방수공사,
검류터조색, 전환경인테리어(현존, 듀팩스 수입페인트)
☎ 583-7391, 010-3507-0744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0-258 (2호선 성서공단역~계명대역사이)
노루페인트인크사 이명영(말뚱보) 이명영(소피어)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검진, 무료검진
위 · 대장내시경 · 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뇨 · 고혈압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소화기 · 내시경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3월 29일(수)
(故) 전달출(토마스데아퀴노) 신부
선종 7주기입니다.

행사 | 모임

제3회 주교님과 함께하는 젊은이의 날

일자: 4.30(일), 성김대건기념관 일대
신청: 교구 청년국, <http://dcy.co.kr>

노인사목 세미나

일자: 4.8(토) 15: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주제: 노년이 겪는 어려움과 대책
대상: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교구 노인담당, 250-3077

제15차 영남지역 CPE 봄 세미나

일자: 4.1(토) 9:30~16:00 / 3만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 마감: 3.30(목)
주제: 로고테라피와 영적돌봄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2박 3일 성령 세미나

기간: 4.7(금) 13:00~9(일) 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고령 월막)
신청비: 12만원(차량이용비: 1만원 별도)
신청: (054)954-0951
치유 피정: 4.1(토) 14:00~2(일) 13:30

바뇌의성모기도회 월레미사

가난한 이와 고통받는 이들에게
발현하신 성모님
일자: 3.30(목) 13:00 기도, 14:00 미사
장소: 계산성당

교육 | 모집

더 행복한 혼인생활을 위한 ME주말

350차 ME주말: 4.28(금) 19:00~30(일)
장소: 한티피정외집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프란치스카눔 요한복음 성경공부 모집

기간: 4.5~6.28 매주 수·목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수도원 뒤)
강사: 강주현(사도요한) 수사 신부
문의: (010)9100-4114

새빛학교 성인 기초영어반 모집

수업: 매주 화, 목 13:00(주 2회)
문의: 새빛학교, 476-3100(교대역)

고령성가의집(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고령 쌍림면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1인 1실 사용
대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일상생활 가능한 어르신)
문의: (054)954-1824 / (010)2362-7044

채용 | 안내

김천 증산 오토캠핑장 사무장 채용

자격: 숙박 가능한 분
마감: 4.2(일)
담당: 임종욱 신부
문의: (054)932-062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홍성출(프란치스코), 하현숙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낙산묘원 묘주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문의: 비산성당, 564-1004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대구가톨릭평화방송(FM 93.1) 4월 라디오 프로그램 안내

신부님과 신자들이 직접 출현해 들려주는 우리본당 이야기 '본당순례: 우리본당은요'

방송시간: 매주 토 오후 6시 5분~7시 (주파수: 포항 96.9MHz, 김천 100.5MHz, 안동 100.7MHz)

4월 1일 소화본당	4월 8일 충효본당	4월 15일 신암본당	4월 22일 수성본당	4월 29일 대신본당
------------	------------	-------------	-------------	-------------

글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등 관절통
프롤로 재생 주사, 스포츠 통증

통증의학전문가 · 원장 정순우 (요셉)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 건너편 범어롯데캐슬 상가 2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6번 출구)

기백한의원

손발 저림, 허리, 어깨
무릎, 두통, 어지럼증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정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K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이옥수(아네스) 010-5048-7739

www.theopen-daegu.co.kr **환절! 춤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1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1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서남시장 맞은편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덕영 (스테파노)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건강 전문의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백두정형외과
www.baekduos.com

정형외과 전문의 배억두 아오스딩
배상근 베드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T. 425-5919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당뇨 고혈압! 합병증 예방이 우선입니다.

수내과

[인공신장실/건강검진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진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